

‘안전한 다문화도시 광산구 만들기’ 머리 맞댄다

외국인주민·민·관·경 참여 상호연대·협력체계 구축 ‘4포인트 간담회’ 개최
월곡동 등 2만여명 거주...밤길 치안문제·차별 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 호소

안전한 다문화도시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주민과 민·관·경이 머리를 맞댔다.

최근 광산구 월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야호센터’에서 ‘민·관·경·외국인주민이 참여한 4포인트 간담회’가 열렸다.

“안전한 월곡동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날 간담회는, 연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 외국인주민은 3만8,7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만1,100여명이 광산구에 살고, 월곡1·2동 거주자는 7,200명 정도로 집계된다.

이런 인적 구성 이외에도 월곡동은, 여러 다문화 음식 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등, 다양한 외국인주민이 들고나는 명실상부한 다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모여 생활하다보니 월곡동에는 이주민 관련 사건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 5년 사이에 발생한 강력사건도 6건에 달한다.

이런 추세는 외국인주민 관련 사건사고라는 꼬리표 때문에, 지역사회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다보니 월곡동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원주민은 물론이고, 이주민인 외국인 주민들도 불안운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안전한 도시에 대한 정책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산구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월곡동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마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대답한 외국인주민들은 ‘우리 외국인주민도 밤 9시 이후로는 무서워서 외출을 자제한다’ ‘외국인주민들도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한다’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광산구는 자유로운 대화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하고, 그 첫 단계로 이번 4포인트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노한복 월곡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위크란다실라나톤 태국 주민대표, 이천영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장 등 50여명의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광산구와 광산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애로점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려인공동체 대표는,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이 월곡동에 살고 있는데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불일치하여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한복 월곡2동 주민자치위원회장과 송지현 고려인법률지원변호사 등은 먼저 골목길이 밝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주민과 이주민이 어울려 살아가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도 제시됐다.



최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야호센터’에서 ‘민·관·경·외국인주민이 참여한 4포인트 간담회’가 열렸다.

크리스 나이지리아공동체 대표는 “공공기관에서 외국인을 받지 않는 것 같다”라며 “관에서 먼저 외국인주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자지 필리핀공동체 대표는 외국인주민으로 사는데 전체적인 정보가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황은영 스페인공동체 대표는 외국인주민이 다 같이 모여 캠페인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다문화 공동체 구성, 불법체류자 단속, 외국인 차별 금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에 월곡동을 외사안전구역 지정해 특별 관리해 줄 것을 이미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제를 도입해 주민 불안을 덜겠다고 전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도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 등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산구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 스마트 보안등과 야간 홍보등 등을 설치해 밤길을 밝히기로 했다.

나아가 자율방범대 등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 안전도 지켜내는 다양한 공동체 형성 지원에도 조만간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물리적 폭력이 동반된 불법에는 지역사회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외국인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마친 다음, 월곡동 유희시설 밀집지역과 인적이 드문 골목 등을 둘러 합동 방문순찰에 나섰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코로나19 이후 시대도 선도한다

경제·안전부문 강화 10대 중점과제 선정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
도농상생 프로젝트 추진·공동체 일자리 창출...시민건강 증진도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구정 밑그림을 잘 짜내 놓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광산구가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 할 것인가’를 부제목으로 하는 ‘코로나19, 그 이후 구정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펼쳐질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광산구가 선도한다는 목표 아래, 경제와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광산구정이 나아가갈 방향을 10대 중점 과제로 선별해 놓은 것.

지난 2월 광주광역시 첫 확진자가 광산구에서 발생한 이후, 광산구는 일제 방역 활동, 지역경제 거버넌스 확산정책의 실행 등을 주도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위기 해소에 모범 자치구로 지역사회 안팎의 평가를 받아왔다.

광산구는 이런 흐름을 잇기 위해 지난 4월, ‘코로나19, 그 이후 구정 대응 테스크포스팀(TF)’을 조직했다.

이 TF팀은 그동안 코로나19 전후 세계 사회·경제·문화 등 전반의 변화를 공유하고, 바뀐 시대 지역의 대응과 발전 방안을 정리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경제 분야의 변화로, 국제사회의 탈세계화 가속, 4차산업혁명의 가시화 등을 꼽았다.

광산구는, 그 해법으로 ‘창업부터 폐업까지 자영업 재구조화’ ‘새로운 영역의 공동체 일자리, 시민수당 확대’ ‘도농 상생을 위한, 농업 활력 프로젝트 실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온·오프라인 통합지원과 재구조화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에 시민수당을 지급해 새로운 영역의 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이 분야 주요 내용이다.

광산구는 안전 분야의 변화로, 보건·위생 포함 모든 분야로 안전 문제 확장, 지방정부 위기대응능

력 부각 등을 들었다. 나아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광산프로젝트 시즌Ⅱ 추진’ ‘일상에서 비상까지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기능 확대’ ‘시민면역력 증진 프로젝트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안전의 범위를 재난·재해 등 사고위주에서 보건·위생까지 확장해 대비하고, 진료기능 최소화하고 감염병 예방 기능 강화로 보건소를 명실상부한 시민 건강 증진의 산실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10대 중점 과제에는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늘행복 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다.

“비대면 문화·관광·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비용 없는 모두가 행복한 그린 광산 조성’ ‘시민소통 지원 광산ON-LINE(온라인) 프로젝트 추진’이 포함돼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행정과 준비하지 않는 행정은 앞으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며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고, 내실 있는 단계적 실천으로 행복한광산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2020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0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된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다. 이번 선정으로 지금까지 모두 7차례의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게 됐다.

광주시는 이번 수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상패 및 포상금 600만원을 받는다.

올해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기초위생관리, 정부주요시책, 가점 등 4개 영역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현장 보고 장비 활용률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합동단속 참여일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수 ▲민원 기한 내 처리율 ▲식중독수거 목표 달성률 및 입력률 ▲식품안전관리 우수사례 ▲업무 관심도 등 13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박차’

노란신호등·무인단속장비 등 설치
광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신호등을 현재까지 103곳에 설치했다.

설치 대상은 157개 초등학교다. 광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예정됐던 사업을 앞당겨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지방경찰청, 자치구 등과 함께 협의해 과속 단속카메라 67곳,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90곳 등을 설치했다. 올해 말까지 추가로 99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90억원(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615곳 중 무신호 횡단보도 87곳에 대해 교통신호기도 설치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모던 스타일

Classic

클래식 스타일

Mediterranean Sea

지중해 스타일